

#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요” 짐사는 동구 자활센터

### 차상위 계층 자립 지원 역할 광주시 건물서 무상임대 운영 건물 매각되면서 6개월내 이전 공과금·인건비·월세까지 '막막'

“재택근무를 할 수도 없고... 실정에 맞는 사무실 구하기가 힘드네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광주 동구 지역자활센터(자활센터)가 사무실 임대료 걱정으로 시름이 깊다. 광주에서 자활센터가 입주한 건물 매각을 추진하면서 사무실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해당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시에서 관리를 할 때는 임대료라도 아껴 센터를 운영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공과금 등도 올랐는데, 월세까지 걱정해야 된다. 당장 6개월 뒤면 방을 빼야 되는데 적당한 사무실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동구 자활센터는 지난 2001년도에 개소해 지난 20여년간 광주시 소유의 금남빌딩(113평)에 입주해 있었다.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그동안 무상임대료로 입주해 운영비를 아꼈었다. 하지만 시가 내년까지 건물을 매각한다고 알려면서 자활센터는 기존 사무실을 비우고 월세를 부담하게 됐다.

자활센터 관계자는 “자활센터 지원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실상 사업비로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이다”며 “구청 등에서도 법에 맞게 지원을 해주지만,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어서 관계기관에 기대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센터는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빠듯해 쉽지 않다.

센터는 국비 70%와 시비 30%로 이뤄진 ‘운영비’와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구성된 ‘사업비’를 각각 지원받아 한해 살림을 꾸린다.

올해 운영비는 4억원으로 이중 3억 80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됐다. 자활센터는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해 12명이 상시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직원 평균 연봉이 3000만원 정도다.

연 사업비는 34억원으로 대부분 참여 주민들의 인건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참여주민은 135명이다. 주민들은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한 명 당 월 평균 13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249명이 참여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함께 한다.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만 2억원 가량에 지원사업까지 더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도 빠듯한 상황이다.

특히 자활센터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방문이 많아 접근성도 고려해야 된다. 사무실이 위치가 그만큼 좋아야 한다는 뜻인데, 공과금과 인건비 등 운영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조건에 맞는 사무실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정작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자활센터가 임대료 문제로 이전할 곳이 막막한 것이다.

김진희 광주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활사업이 차상위 계층들의 탈수급이 목표인데, 수급을 받는게 개인한테는

더 이득인 경우도 있어서 (탈수급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지원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센터가 입주할 사무실을 몇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곳은 없다. 월세는 구에서 지원해줄 수 없게 돼 있다”며 “2년 뒤에 청사에 빈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쯤 센터를 구청으로 옮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은 자활센터에게 무척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명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3일 광주시청 충무시실에서 열린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을 위한 풍수해·폭염 대응 대책회의'에서 협업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 관련기사 5면 <광주시 제9

## 광주서 호남 첫 발달 장애인 e스포츠대회 열린다

### 23일 광산구 호남대서 개최 피파·카트라이더 등 개인전 참가자 전원 메달 및 장려금

광주에서 호남 첫 발달 장애인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된다.

13일 광주e스포츠교육원에 따르면, 오는 23일 광산구 호남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가 열린다. 참가 지역은 개최지 광주를 비롯, 전남·북·제주도 등 4개 지역이다. 종목은 기본 직종 △데이터입력 △기기조립 △봉제 △바리스타, 특화직종 △행정정보 △e스포츠로 꾸려졌다.

이 가운데 e스포츠 직종은 올해 처음으로 입된 종목으로, 최근 장애인들 사이에서 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신규 직종으로 개설됐다. 반면 참가가 저조한 기기조립·봉제 기본직종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 삭제될 예정이다.

e스포츠 세부 종목은 피파온라인4·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1대1 개인 토너먼트제로 경기를 진행, 최종 결승전에서 우승자를 가린다.

상금은 금상 50만원·은상 30만원·동상 20만 등 총 100만원이다. 실격자를 제외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 메달과 함께 참가 장려금 5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호남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e스포츠

교육원에 선수로 등록돼 추후 전국 발달 장애인 기능대회 등을 위한 전문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전국·국제대회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는 자다. 학력 등 기타 제한은 없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지적발달복지협회 누리집 방문 또는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 전화하면 된다.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 관계자는 “e스포츠는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장벽이 없다. 노력에 따라 비장애인과 겨룰 수도 있다”며 “올해 첫 시행되는 장애인 e스포츠 종목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연철 광주e스포츠교육원장(호남대 e스포츠학과장)은 “최근 광주 지역에 장애인e스포츠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기회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교육원에서 전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e스포츠가 장애인들에게도 '주류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원 측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 기회 및 자기인식을 도모하고 사회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정성현 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